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월 29일

CUOMO 주지사, 뉴욕주를 미국에서 세 번째로 우유 생산을 많이 하는 주임을 발표하다

2013년 뉴욕의 낙농업이 Idaho 를 넘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행정부 활동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2013년에 Idaho 주의 우유 생산량을 5,700만 파운드로 넘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 규모의 우유 생산지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농림부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는 뉴욕주가 과거 1972년부터 2009년까지 꼭 3위를 고수했다가 2009 이후 이번에 다시 미국 우유 생산량 3위 자리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 뉴욕의 우유 생산량은 미국 평균 0.4%와 비교해 2013년에 2.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증가는 뉴욕이 4년 연속 우유 생산 증가를 보여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유 수요 증가 때문이고, 크게는 젖소 마리 당 우유 생산량도 2009년에서 2013년까지 10.2% 증가한 것과 더불어 뉴욕주에서 호황을 맞고 있는 요구르트 산업 때문입니다. 뉴욕은 또한 크림 치즈와 카티지 치즈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뉴욕주는 미국의 3대 우유 생산지의 하나로서 그 자리를 되찾으면서, 낙농업에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해주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유 생산은 업스테이트 뉴욕에 수 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의 수 백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처럼 호황을 맞고 있는 농업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계속 힘을 합쳐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보여주신 뉴욕의 낙농업 종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낙농업은 뉴욕의 주요 농업 부문으로 뉴욕주의 총 농업 수입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유 공급량 증가는 뉴욕주에 들어서 있는 공장들의 요구르트 생산의 엄청난 증가에 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2년, 뉴욕의 요구르트 생산량은 6억9,500만 파운드였습니다. 생산량이 2억3,400만 파운드였던 2007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뉴욕은 2012년에 미국 제1위의 요구르트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장관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 첫 날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분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낙농업에 대한 이 행정부의 활동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호황기에 농업시장부의 일원이 되어 이

Korean

부문의 경제를 맡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첫 요구르트 서밋에서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CAFO(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regulations)에 따른 현재의 젖소 사육 상한선을 199마리에서 299마리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낙농업 발전을 위해 환경 규제와 경제적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려한 주지사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사육할 수 있는 젖소의 수를 늘려 우유 생산을 증대시켜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행하기 위한 법규는 2013년 5월에 시행되었고 DEC가 내놓은 개정된 일반 허가서는 2013년 7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주지사가 최근의 시정방침에서 발표했듯이 뉴욕주 낙농업이 경이로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2회 요구르트 서밋이 2014년도에 개최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가 제의한 2014-15년도 실행 예산에는 뉴욕주의 그리스 요구르트 산업에서 생산한 산성 유청 관리에 대한 연구비 500,000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낙농업 농장주가 유기폐기물에서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하는 재생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무산소 소화제 기술을 설치할 수 있도록 NYSERDA를 통해서 2,0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농장, 식품처리 제조업체 또는 시 폐수 처리 장소는 프로젝트 별로 최고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nyserda.ny.gov/Funding-Opportunities/Current-Funding-Opportunities/PON-2828-Renewable-Portfolio-Stand-Customer-Sited-Tier-Anaerobic-Digester-Gas-to-Electricity.aspx>

또한 Cuomo 주지사는 최근 DAP(Dairy Acceleration Program)이 850,000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8월에 발표했던 1백만 달러 외에 따로 책정된 것입니다. DAP은 농업시장부와 환경보존부로부터 공동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DAP 지원금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작성하거나 사업 및 시설 확장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업체당 5,000 달러를 지급하고, 기존 CNMP(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를 갱신할 경우에는 4,500 달러,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6,000 달러를 지급합니다.

DAP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ansci.cornell.edu/prodairy/dairy_acceleration/

뉴욕농업부 담당관인 Dean Nor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농업부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시는 뉴욕의 근면한 낙농업 농장주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뉴욕주가 최대 낙농제품 생산 주에서 다시 3위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뛰어난 동물 관리 덕분입니다. 이는 뉴욕의 농업 경제에 좋은 징조입니다. 뉴욕주의 낙농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주지사와 함께 우리는 소비자들이 점차 원하는 건강에 좋고 영양가 높은 제품을 제공하는 미국 선도 지역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Cornell University의 농업생명공학대학의 The Ronald P. Lynch 학장인 Kathryn J. Boo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mpire State의 낙농업에 대한 열정은 우리 낙농업 종사자들, Cornell University의

Korean

농업생명공학대학, Cuomo 주지사 사무실의 활발한 협업의 결과입니다. 우리 대학의 핵심 낙농업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지원과, 제조업의 실질적인 확대, DAP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성장 활동 조성을 위한 주정부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낙농업이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Northeast 낙농업협회의 Kerry Adams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rtheast 낙농업협회는 우리 뉴욕주에서 증가하는 우유 처리 수요에 열심히 부응해준 뉴욕 낙농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 3위의 유제품 생산주의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것은 뉴욕 낙농업자들이 업계의 니즈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열심히 노력할 덕분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